

한영간 장소이동구문 번역의 문제

Korean-English Translation of Location Movement Expressions

이영옥
(경희대학교)

0. 서론

한국어와 영어는 음운, 어휘, 어순을 비롯한 전반적인 언어체계가 서로 매우 상이하여 영한 또는 한영번역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요인이 되고 있으며 한국인이 영어를 습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 인구어족의 다른 언어권의 경우 영어와 같은 어원을 갖는 어휘가 상당수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어순이나 문장구조가 상당히 유사하여 영어를 습득하거나 번역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하여 한국어와 영어는 특히 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표현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이는 근본적인 언어체계의 차이와 더 나아가 인지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두 언어의 비교에서 기본어순의 차이는 어휘분포의 차이보다 전체적인 언어체계에 더 포괄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어는 주어-보어/목적어-술어, 즉

S-O-V의 기본어순을 가지는 데 비하여 영어는 주어-동사-목적어/보어, 즉 S-V-O의 기본어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본어순에 의하여 한국어는 화자-청자간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른 다양한 어미변화와 함께 동사나 서술형용사가 다양하게 발달되어 사용되고 있고 영어는 명사로 문장을 종결짓게 되므로 다양한 명사관련표현이 발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언어유형의 관점에서 언어를 크게 동사가 주도적으로 사용되는 행동지배언어(action-dominant language)와 명사가 주도적으로 사용되는 객체지배언어(object-dominant language)로 구분할 때 한국어는 동사 및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어 표현이 발달한 동사중심언어 혹은 행동지배언어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고 영어는 (1) 문장의 주어가 반드시 표출되어야 하고, (2) 목적어를 동반하는 타동사가 발달하였고, (3) 목적어를 동반하는 전치사가 다양하게 발달되었다는 점에서 명사중심언어 혹은 객체지배언어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Talmy 2000a: 46) 이와 함께 장소이동표현과 관련시켜 한국어와 영어를 각각 경료언어와 공사건언어로 구분한 Talmy (2000b)의 분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임성출 (2000, 2001, 2002), 김영주 (1997), 이숙희 (1992) 등 한국어의 장소이동표현과 관련된 연구가 있었지만 영어와 대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못하였다. 본 연구는 기본어순과 같은 문장구조를 비롯하여 어휘체계 및 의미체계가 다른 한국어와 영어간 장소이동표현의 차이점을 살펴 보고 언어유형의 차이와 함께 이와 관련한 양언어의 언어적 특징과 연관된 인지구조상의 차이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같은 상황이나 사건을 가지고도 인지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나고 그와 함께 의미를 부여하고 나열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가져오며 이를 더 확대하여 동사의 의미가 동사의 기능이나 양태를 결정한다는 가설 (Wierzbicka 1986, Pinker 1989, Levin and Pinker 1991)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으로 사용한 예들은 Barlow (2000)나 Levin, Song, Atkins (1997) 등에 의해 주장된 코퍼스(corpus) 언어학의 정신에 입각하여 영어의 경우는 신문, 잡지, 수필, 소설 등 각종 실제 자료를 수집한 것이고 영어구문과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한국어는 이에 대응되는 표현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1. 한국어의 술어와 영어의 동사

시제나 상(aspect), 태(voice) 등과 관련한 어형변화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어의 술어와 영어의 동사는 다르다. 먼저 한국어에서는 동사나 서술적 형용사가 모두 문장종결어미를 취하여 문장의 종결을 표시하거나 연결어미로써 여러 술어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일련의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목적어나 보어 없이 자동사만으로 동사들이 나열되어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어를 갖추지 않은 자동사라 하더라도 부사구가 동사 뒤에 이어 나옴으로써 동사로 문장이 끝나는 경우는 드물다. 한국어에서 영어와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문장종결어미가 추가되어 문장을 종결짓는 역할을 하는 서술어로 문장이 끝난다는 점이다. 종결어미는 문장을 종결짓고 문장의 종류를 표현해 주기도 하지만 청자, 화자, 주어 또는 목적어 등이 갖는 상하, 친소 등 사회언어학적인 상호관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준비법이 표출되기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의 예문에서 한국어 번역 예들은 모두 영어의 동사에 상응하는 단일동사를 사용한 문장이 불가능하다.

- (1) a. The frightened monkeys huddled in the back of their cage.
놀란 원숭이들은 우리 뒤쪽에 웅크리고 있었다/있었어(요)/있었습니다.
- b. The Belgian city houses the European Union and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그 벨기에의 도시에는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자리잡고 있다/있어(요)/있습니다.
- c. It's been a difficult weekend, but we survived.
이번 주말은 정말 힘들었다/힘들었어(요)/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잘 견뎠지(요)/견뎠습니다.
- d. We shared the remaining water among the four of us.
남은 물을 우리 넷이서 나누어 마셨다/마셨어(요)/마셨습니다.

(1)의 각 예문들의 영어표현에서는 단일 동사들로 표현된 사건이나 상황이 한국어 번역에서는 모두 둘 이상의 동사나 명사가 추가되어 표현되었음을 볼 수 있다. 즉, (1a)에서 ‘huddle’은 ‘웅크리다’와 ‘있다’의 두 개의 동사로, (1b)에

서 ‘houses’는 ‘자리잡다’와 ‘있다’로, (1c)에서 ‘survived’는 ‘견디다’와 ‘내다’로 (1d)에서 ‘share’는 ‘나누다’와 ‘마시다’로 표현되었다. 영어에서는 단일동사로 표현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한국어 표현에서는 하나 이상의 동사군이나 부사어 등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1b)의 경우 한국어 표현에서는 단일동사를 사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영어의 주어-보어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는 영어와 달리 한국어의 경우 무정명사(inanimate noun)를 주어로 하는 타동사 구문이 자연스럽지 못한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영옥 2001a, 2001b).

(1c)에서는 동사 ‘survived’에 대한 한국어 표현이 단일동사로 표출될 수 없을 뿐 아니라 ‘It’s been a difficult weekend’의 경우에도 한국어에서는 영어에서와 같은 문장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같은 상황에 대한 표현방법으로 영어에서와 같이 연결관계를 나타내는 ‘be’동사와 함께 수식어를 결들인 명사 보어의 구조보다는 한국어에서는 수식어 부분을 서술동사로 표현하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

또한 발화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청자와 화자간의 연령, 친소, 계급 등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하여 영어에서는 단일한 표현이라도 한국어에서는 종결어미를 다르게 써야 하므로 영어문장과 한국어문장은 일대일 대응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한국어와 영어의 구조상의 차이점은 한국어에서는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을 표현할 때 그 사건이나 상황을 둘 이상의 연속된 행위나 동작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하는 반면에 영어에서는 그러한 복합적인 사건이나 상황을 분화시키지 않은 채 단일한 사건이나 상황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그 사건이나 상황의 주체 (agent)나 대상(patient)을 따로이 부각시키는 인지구조상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어에서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나 동작으로 파악하여 동사 및 보조동사들을 나열하며 부사어를 첨부하는 문장구조를 취하는 데 반하여 영어에서는 동사 자체에 복합적인 의미를 다양하게 표출할 수 있는 동사가 발달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 가지 상황이나 사건에 대하여 다음 (2)와 같이 어휘화(lexicalize)되어 주동사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한국어의 보조동사들을 사용하거나 둘 이상의 동사들을 나열하는 식의 구조적 체계화 현상을 영어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2) 주동사 + 어/아 가다/오다/나다/내다/넘다/넘기다/다니다/당기다/대다/드리다/들다/들이다/떼다/떡다/바치다/버리다/붙이다/섬기다/있다/젓히다/주다/지다/차리다/채다/치다

예: 뛰어가다, 달려오다, 살아나다, 견뎌내다, 뛰어넘다, 받아넘기다, 뛰어다니다, 잡아당기다, 밀어대다, 집어드리다, 달려들다, 맞아들이다, 잡아떼다, 잡아떡다, 일러바치다, 잊어버리다, 밀어붙이다, 주위섬기다, 누워있다, 옷어젓히다, 도와주다, 엎어지다, 알아차리다, 잡아채다, 받아치다

2. 복구 가능한 맥락 속에서의 생략현상

연결어미나 종결어미와 함께 다양한 사회언어학적 화용론적 의의를 가지는 한국어 동사의 특성은 생략 및 대응어 사용의 측면에서 영어와 비교함으로써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앨러튼이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듯이 언어사용에서도 경제원칙이 작용하여 복구 가능한 경우에는 대응어를 사용하거나 반복되는 부분을 생략하거나 축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The law of least effort is constantly at play in language use. Redundant linguistic items are consistently reduced in size, replaced with a proform or simply left out. (Allerton, 1975)

그러나 각 언어가 가진 특성에 따라 한국어나 영어의 생략 및 축약현상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2.1 한영간 대응어 사용의 차이

먼저 한국어와 영어간 대응어 사용에서의 대표적인 차이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한국어에서는 상황이나 맥락에서 추정이 가능할 경우 주어나 목적어 등을 자유로이 생략할 수 있으므로 주어나 목적어의 위치가 반드시 표면상에 출

현하여야 하는 제약을 가진 영어에서와 같이 대명사가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다음 영어예문들에서 밑줄 친 대명사들은 한국어 대응표현에서는 표현되지 않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다.

- (3) a. I must run or I shall miss my train!
 b. Where can you buy organic food around here?
 c. Where do they sell organic food around here?
 d. If all else fails (=If none of our plans succeed), we can always spend the holidays at home.
 e. Smells are surer than sounds or sights to make your heartstrings crack.
 f. He was in his 40s.
 g. It looks as if we're going to have bad weather.

이와 함께 영어에서는 명사에 관하여 단수, 복수 등의 수(number), 정관사나 부정관사 등으로 표출되는 지정성(definiteness) 또는 소유관계 등을 규정하는 지정사(determiner)가 의무적으로 첨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3a, e, f)에서의 소유형용사는 일상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어 대응표현에서는 이를 나타내기 어렵다.

2.2 한영간 생략현상의 차이

영어에서는 동사가 보어나 목적어에 선행되므로 다음 (4)의 영어 예에서 보듯이 같은 문장이나 이어지는 대화에서 동일한 보어나 목적어와 함께 주동사는 생략되고 시제나 상을 나타내는 조동사만으로 표현될 수 있다.

- (4) a. I'm happy if you are ____.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b. Paul denied the charge, but his friend didn't ____.
 폴은 그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의 친구는 부인하지 않았다.
 c. I realized I could no longer confide in Alice, and haven't ____ since.

나는 더 이상 엘리스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신뢰하지 않았다.

d. Susan never has ___ and never will love Jack.

수전은 잭을 결코 사랑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e. I wonder should I call the waiter. - I think you'd better ____.

웨이터를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 - 부르는 게 좋겠는데.

(4)의 한국어 대응예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의 경우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다소 반복이 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동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의 예에서는 영어의 'do so'에 해당하는 '그러다'와 같은 대응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5) a. [She sounded tired.] - Yes, she did.

[[그 분] 말하는 게 피곤한 것 같았어.] - 그래, (정말) 그랬어.

b. [Will you attend the meeting this evening?] - I may.

[오늘 저녁 모임에 갈 거야?] - (아마) 그럴 거야/갈 거야.

c. Are you ready to order? - Yes, we are ____.

주문하시겠어요? - 그래요.

이는 영어에서는 동사의 시제나 상(aspect) 등을 본동사와는 별개의 조동사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반복되는 부분인 본동사만을 자유로이 생략할 수 있는데 반하여 한국어에서는 동사에 문장의 종결어미가 추가되는 형태를 취하므로 영어만큼 쉽게 생략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즉, 한국어에서는 동사나 서술형용사가 문장의 말미에서 그 문장의 연결이나 종결관계를 보여주고 청자와 화자간의 사회적 관계를 표출하기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단순히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되는 구조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어에서는 주어나 목적어 자리를 반드시 표출하여야 한다는 제약과 함께 반복을 피하기 위한 기재로서 대명사가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는 데 비하여 한국어에서는 주어나 목적어는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복구 가능한 경우에는 자유로이 생략이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대명사는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동사의 생략 현상은 영어보다 더 많은 제약을 보인다.

다는 사실이다. 이는 영어와 달리 동사나 서술형용사와 같은 술어가 문장의 가장 마지막에 출현하면서 문장의 연결어미나 종결어미가 반드시 추가되어야 하는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장소이동표현

Talmy (2000b)는 부각되는 의미 요소에 따라 전세계의 언어를 공사건(Co-event) 언어, 경로(Path) 언어, 형상(Figure) 언어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영어를 비롯한 인구어, 중국어 등의 공사건 언어는 양태(Manner)나 원인(Cause) 과 같은 공시적 사건들을 하나의 동사 어근에 담고 있는 데 비하여 한국어, 일본어와 같은 경로 언어는 경로를 행동과 함께 묶어 어근에 담고 있는 언어로 분류한다. 본 논문에서는 장소이동표현과 관련하여 의미 요소에 따른 이러한 유형분류는 기본어순이 주어-보어/목적어-술어인지 주어-술어-목적어/보어인지 하는 기본 기본어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이도록 하겠다.

경로언어인 한국어에서는 부사어나 의성어 의태어, 또는 둘 이상의 동사로 표현할 것을 공사건 언어인 영어에서는 동사 자체에 양태, 원인 등의 의미요소를 담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장소이동과 관련된 표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에서 구체적인 예와 함께 영어에서 단일동사로 표현되는 장소이동관련표현이 한국어에서는 부사어나 의성어 의태어, 또는 둘 이상의 동사로써 보충해 주어야만 성립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다.

3.1 양태부사어의 첨가

- (6) a. [One of them opened the door, and] Gminski barged through it
[without any sort of greeting.]
그민스키는 (그 문으로) 급히 들어갔다.
- b. The protesters were bundled into an unmarked car by authorities
and driven off.
관리들은 데모대들을 황급히 사제 차에 밀어 넣고 사라졌다.
- c. He eased into the car.

살그머니 차 안으로 들어갔다/차를 탔다.

d. The bus jolted its passengers over the rough road.

버스는 울퉁불퉁한 길을 덜컹거리며 승객을 태우고 갔다.

(6)을 보면 영어의 *barge, bundle, ease, jolt* 등과 일치하는 단일동사가 없으므로 한국어에서는 이를 ‘급히, 황급히, 살그머니’와 같은 양태부사어나 ‘덜컹거리며’와 같은 양태부사성 동사를 첨가하여 표현하고 있다. 동사 또한 단일동사가 아니라 두 동사가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방향이나 장소와 같이 영어에서 전치사를 통하여 표현되는 부분도 한국어에서는 동사로 나타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국어에서 양태부사어를 첨가하여야 하는 동사들은 영어에서 주로 속도나 모양과 관련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동사들이다.

- (7) *barge, blunder, bolt, bore, bundle, dart, ease, edge, fuss, hobble, hop, hover, hurry, jolt, ply, rip, roll, rumble, run, rush, scour, shoot, slide, slip, slink, sneak, spurt, steal, stumble, swagger, tear, trundle*

이들 동사들은 장소이동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동사 *come*과 *go*가 청자나 화자로부터의 거리나 방향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과는 달리 방향, 경로, 장소 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향, 경로, 장소 등을 나타내는 전치사구나 부사어가 첨가되어야 한다. *along, near, close, far, away* 등의 극소수 부사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치사구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전치사구 부분은 한국어에서는 동사로 표현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어의 전치사구는 한국어에서는 동사구의 형태로 대응되는데 이때 전치사의 목적어로 나타나는 장소표현은 한국어에서는 동사에 선행하게 된다.

(6b)의 경우는 (6a, c)와 달리 *bundle*이 타동사로서 수동구문이지만 한국어 번역은 이에 상응하는 수동구문이 불가능하다. 영어의 수동구문이 한국어에서는 자동사 구문으로 대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영어에서는 한국어보다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가 발달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영옥 2000). 특히 부정명사가 주어인 다음과 같은 타동사 구문이 한국어에서는 자동사로 표현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8) a. The wind crackled the edges [of a piece of paper].
 ?바람이 종이를 필럭이게 하였다.
 바람에 종이가 필럭였다.
- b. . . the breezes that rattled the leaves in the trees
 ?나뭇잎들을 살랑살랑 흔들어 놓았던 미풍
 (?미풍이 나뭇잎들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 미풍에 나뭇잎들이 살랑
 거렸다.)
- c. Her expression suggested anger.
 ?그녀의 표정이 화났음을 암시하였다.
 그녀의 표정을 보니 화가 난 것 같았다.
- d. Lack of space prevents a full account.
 ?지면의 부족이 완전한 설명을 막는다.
 지면이 부족하여 완전한 설명을 하기 어렵다.

(8b)의 경우는 breezes라는 무정명사가 주어인 관계절 구문으로 한국어에서는 관계절 내의 구문 자체가 ‘미풍’을 주어로 상정하게 되어 어색한 경우이다. 은유법 (metaphor)을 사용한 시적 표현으로는 용납될지 모르나 일상적인 표현 범으로는 영어표현과 대응하여 ‘미풍’을 ‘흔들다’의 동사로 사용하는 것은 어색하게 들린다.

3.2 의성어, 의태어의 첨가

- (9) a. [She opened a fresh bottle of Perrier water,] clattered ice cubes
 into a long glass.
 긴 유리잔에 얼음덩어리를 짹짹 하고 집어넣었다.
- b. The traffic was crawling along [because of the roadworks].
 차들이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었다.
- c. Rocks are hurtling down the cliffs.
 바위덩어리들이 절벽 아래로 우르르 굴러 떨어지고 있다.

(9)와 같이 소리나 모양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움직임을 표현할 때 영어에서는 동사 자체에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따로 표현해 주어야

한다. 그러한 대응관계는 장소이동과 관련한 다음 (10)과 같은 동사들 외에 (11)에 보이는 바와 같이 순수하게 소리를 나타내는 표현들에도 적용할 수 있다.

(10) clop, clump, crawl, dangle, drip, fling, flutter, float, flop, flump, flutter, frisk, hobble, hurtle, plod, roam, roar, roll, rumble, skulk, slide, slink

(11) clatter, clunk, crack, crackle, creak, croak, crinkle, croon, crunch, drum, frizz, frizzle, gabble, groan, gurgle, honk, hoot, jangle, jingle, rattle, ring, roar, rumble, scream, screech, sizzle, squawk, squeak, squeal, throb, thud, wheeze, whir, whisper, whistle

이러한 영어 동사들을 한국어로 표현하려면 동사 외에 의성어나 의태어를 추가해 주어야 하므로 영어에 비하여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게 된다. 그러나 영어에 비하여 한국어는 동사가 문미에 위치하고 연결어미를 통하여 자유로이 다른 동사들과 연결하거나 부사어를 보충하여 동사로 표현되는 동작에 따른 양태를 표현하는 것이 용이하다. 반면 영어에서는 타동사의 경우 목적어를 이어 주어야 하고 보어를 취하는 자동사의 경우 보어가 동사 뒤에 추가되어야 하므로 한국어에서처럼 동사와 관련되어 사용될 수 있는 부사어가 발달되기보다는 동사어근에 부사어로 표현될 의미요소까지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동사가 발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와 영어간 의성어나 의태어는 문장 내에서의 기능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한국어에서는 동사에 앞서 부사어로서의 기능을 하거나 (12)와 같이 “거리다, 대다, 이다”와 같은 동사어미와 함께 동사화하여 사용한다. 이때 타동사보다는 자동사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2) 의성어: 부스럭거리다 바스락거리다 쿵쾅거리다 뱅뱅거리다 삐걱거리다
 헤헤거리다 쟁그랑거리다 철썩거리다/이다 덜덜거리다/이다
 툄툄거리다/대다 지글거리다/대다 헉헉거리다
 의태어: 너울거리다/대다 나풀거리다/대다 들썩거리다/이다 뒤뚱대다
 출렁거리다/이다 반들거리다 출랑거리다/대다/이다 달랑거리다
 흔들거리다/대다/이다 비틀거리다/대다 허둥거리다/대다 휘청

거리다 우물거리다/대다 멈칫거리다/대다 북적거리다/대다 펄럭거리다/이다 빈둥거리다/대다

이에 비하여 영어에서는 의성어나 의태어가 자동사, 타동사 등의 동사의 기능 이외에도 다음 예에서와 같이 표면적인 형태의 변화없이 주어나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등의 명사의 기능으로도 다양하게 표출됨을 볼 수 있다.

- (13) a. I heard a loud bang.
 b. I knew from the bang of the door that he had left.
 c. The firework went off with a loud bang.
 d. An echoing rumble became a powerful roar as the volcano erupted.
 e. It was impossible for me to make out what they were saying above the crackle of the bonfire.
 f. The radio was on, but turned down to a murmur.
 g. The murmur of distant traffic reached the farm when the wind was in the east.
 h. I could hear the buzz of a chainsaw far away among the trees.
 i. Secretaries were chatting above the hum of photocopiers and the clatter of typewriters.
- (14) a. There was a crack and a loud boom. The chemical works was on fire.
 b. There was a great roar, then the whole building was engulfed in flames.
 c. There was a loud sizzle as the cook flung another hamburger onto the grill.
 d. There was no sound in the library except the occasional cough and the rustle of papers.
 e. He turned on the gas tap. There was a brief hiss, then silence.
 f. There was a slam of a car door, an engine roared into life, and a moment later the truck was moving.
 g. As she opened the window, there was a swish, and the curtains flew up.

영어에서는 특히 (14)와 같이 소리와 관련된 상황에서 there구문이 자주 사용됨을 관찰할 수 있다. 이밖에도 applause, bump, clatter, cry, gasp, giggle, knock, patter, rap, roar, scrape, screech, slam, splash, thud, whirl, whisper 등 어딘가에서 나는 소리의 존재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there구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는 경우 그 소리의 출처, 즉 행위자(agent)를 명시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 경우 한국어에서는 소리의 출처를 굳이 명시하지 않더라도 “어떠어떠한 소리가 나다”라는 형태로 같은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어가 동사들을 활용하여 일련의 사건이나 상황을 서술하는 경로언어인 데 비하여 영어는 동사 자체에 양태, 원인 등의 의미요소를 함축하고 부정명사도 자유로이 주어로 나타날 수 있는 타동사가 발달되어 동사의 형태로 표현하고자 할 때 주어나 목적어를 따로 표현해 주어야 하는 공사건 언어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하겠다. 갑작스럽게 출처를 인지할 수 없는 어떤 소리가 나는 상황에서는 그 소리의 출처를 나타내는 주어나 소리의 발생과 연관된 대상을 목적으로 표현해 준다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동사의 의미와 관련된 주어나 목적어를 부가할 필요가 없이 허사 there를 주어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보어로 명사구만을 가지고 성립될 수 있는 there구문으로 그러한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동사가 문장의 마지막에 출현하는 한국어에서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자동사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므로 영어식의 there구문에 해당되는 구조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영어의 there구문에 상응하여 명사구를 보어로 할 경우 추가로 ‘있다’와 같은 무의미한 동사로써 문장을 종결해야 하므로 오히려 낭비와 어색함이 따른다.

영어에서는 이 같은 의성어 외에도 출처나 행위자를 명시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동작이나 상황을 명사화하여 there의 보어로 처리하는 예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다음이 그 예들이다.

- (15) a. On my way home on a crowded train, there was a long delay
between two stations.
... 두 정거장 사이에서 오래 연착이 되었다.
- b. Even after the sun went down, there was no relief from the heat
and humidity.
... 열기와 습도가 가라앉지 않았다.

- c. There is no scarcity of sand in Egypt.
이집트에는 모래가 부족하지 않다.
- d. There were severe food shortages during the war.
전쟁 중에 엄청나게 식량이 부족하였다.
- e. There was a long wait.
오래 기다려야 했다.

(15)에 대응되는 한국어 예들은 모두 영어 there 구문에 상응하는 “... 이 있다”와 같은 구문보다는 there의 보어로 표현된 명사들을 적절히 동사나 형용사로 바꾸어 주고 있다.

3.3 보조동사 또는 추가적인 동사의 사용

- (16) a. [The Queen was off raising money, and no friends or family greeted the President as] he bounced off the plane and darted into his limousine.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서 리무진 안으로 달려 들어 갔다.
- b. [From the age of six,] when he dashed down a hill [to spread the news of President Harding's death, Walter Cronkite's vocation was unmistakable.]
언덕을 달려 내려 왔을 때

(16)의 경우 bounce, dart, dash와 같은 영어의 동사들은 그 동사 자체로서는 방향이나 장소를 함축하지 않은 채 움직임의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때 방향이나 장소는 동사에 이어 나오는 전치사구나 부사어로 따로 표현된다. 이렇게 영어에서는 전치사구를 통하여 방향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동사 만큼 의미 전달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영어에서는 전치사구가 동사와 결합되어 독특한 의미를 나타내는 phrasal verb가 발달해서 기존의 동사들을 보충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phrasal verb에서 전치사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way가 목적어로 사용되는 다음 (17), (18)과 같은 장소이동표현들에서 전치사구는 방향이나 장소를 표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17) a. Miss F clattered her way . . . to her classroom.
 b. The children splashed in a brook that gurgled its way to a refurbished mill.
 c. Tramcars rattled, roared and clanged their way along Norfolk St.
 d. . . . the three Muses rumble their way through their career.
 e. They splashed their way up the brook.
 f. . . . the Ram squeaked its way down that back lane behind the offices of The Times
 g. . . . we thudded our way across the calm sea.

- (18) a. She clawed her way to the top of the political ladder.
 그녀는 한발짝씩 올라가 정치계의 정상에 다다랐다.
 b. He edged his way through the crowd.
 그는 군중을 뚫고 조금씩 나아갔다.
 c. He elbowed his way to the front of the crowd.
 그는 팔꿈치로 밀치면서 사람들 앞으로 나갔다.
 d. He jostled his way out of the bus.
 그는 사람들을 밀어젖히고 버스에서 내렸다.
 e. Finally, they kicked their way into the bedroom, breaking the door in half.
 마침내 그들은 발길로 문을 박차 문을 반 조각 내고 침실 안으로 들어갔다.
 f. An army of rats is nibbling its way through Vietnam's precious rice fields.
 쥐떼들이 곡식을 갉아 먹으며 월남의 소중한 곡창지대를 지나가고 있다.
 g. Richard picks his way through the crowd, [his rucksack on his back.]
 리처드는 군중을 뚫고 조금씩 나아간다.
 h. [She] plowed her way into the throng in the hallway.
 그녀는 문간에서 군중 속으로 헤치며 들어갔다.
 i. He pushed his way towards her.
 그는 (사람들을) 밀치고 그 여자 쪽으로 다가갔다.
 j. He scratched his way up from poverty to become a famed

politician.

그는 애써 가난을 딛고 올라서 유명한 정치가가 되었다.

k. She managed to talk her way out of a difficult situation.

그녀는 말을 잘 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났다.

l. The cyclist weaved his way through the busy traffic.

그 자전거 주자는 혼잡한 차길을 뚫고 누비며 나아갔다.

(17)의 예들은 주동사가 소리를 나타내는 동사로서 영어에서는 이밖에도 crackle, creak, groan, honk, hoot, jingle, squawk, squeal, whirl, whistle 등의 동사들이 모두 자유로이 way 구문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Levin, Song, and Atkins 1997; Barlow 2000)

소리표현동사와 같이 쓰이는 경우 외에도 (18)의 예들은 영어에서 way를 목적어로 한 장소이동표현이 얼마나 다양하고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지 보여주고 있다. 영어에서 way를 목적어로 하여 각종 움직임의 양식을 타동사로 표현하고 이어서 전치사구를 통하여 방향이나 경로, 장소를 나타내는 이러한 구문은 한국어에서는 상응한 예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구문들이다. 영어의 경우 그 자체로는 장소 이동과 관련된 의미는 갖지 않은 채 소리나 태도 등 여러 가지 동작에 수반되는 양태를 표현하는 단일동사에 방향, 경로, 장소 등을 지칭하는 전치사구 내지 부사어를 이어 줌으로써 어떤 방향이나 경로를 통하여 어디로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어의 경우는 ‘뚫다, 밀치다, 박차다, 헤치다’ 등 동작의 양태만을 표현하는 동사 외에 반드시 ‘다다르다, 나아가다, 나가다, 내리다, 들어가다, 지나가다, 다가가다, 오르다, 벗어나다’ 등 장소 이동을 지칭하기 위한 별도의 동사가 추가되어야 하며 이는 두 언어간의 인지구조상의 차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즉 영어에서는 단일동사를 중심으로 way와 같이 그 자체로는 특정한 의미가 없는 목적어와 함께 동작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제시한 후 전치사구나 부사어 등으로 표현되는 방향, 경로, 장소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장소이동의 인지가 이루어지는 데 비하여 한국어에서는 장소이동을 수반하는 부수적인 동작을 별도의 사건이나 상황으로 파악하여 별개의 동사들을 나열하며 이들 동사들과 더불어 부사어의 형식으로 방향, 경로, 장소 등의 정보를 추가하는 식이다.

영어에서 이러한 way 구문이 가능한 것은 의미가 압축적으로 표현되는 동

사와 함께 전치사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어에서는 전치사구를 통하여 한국어에서는 동사나 형용사 등의 술어로 표현해야 할 사건이나 상황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 (19) a. [We had to force our own way southwards against the crowds,]
hooting them out of our way.
[경적을 울려] 사람들을 피하게 하면서
- b. He shook his head in disbelief.
믿지 못하겠다는 듯/믿지 못하여
- c. The children watched in wide-eyed amazement.
놀라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 d. Deanna's face softened as she looked at her daughter, then pulled her into a hug.
[뺨을 끌어] 안았다.
- e. . . . his fellow commuters jostled for space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 f. It was a silly thing to say, the sort of things strangers say to each other for lack of something better.
더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 g. Despite years of reporting on tragedies around the world, Dan Rather is clearly an optimist.
몇 년 동안 세계 도처에서 비극적인 사건들을 보도해 왔지만
- h. Everything turned gold at a touch.
손을 대자

(19)의 예들은 모두 영어에서는 전치사구만으로 동사나 형용사로 표현할 의 미요소들을 축약하여 표현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한국어의 대응 표현들에서는 모두 동사나 형용사들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어와 영어 간의 기본적인 인지작용의 차이에 따른 문장구성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 또한 한국어가 동사중심, 즉 행동지배언어 유형인 반면 영어는 명사중심, 즉 객체지배언어 유형이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장소이동 표현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영어 표현의 특징적인 차이를 살펴보았거니와 장소이동 표현 상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양언어 간 기본적인 어순이나 동사의 특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양언어 사용자들의 인지구조의 차이와도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음을 보았다. 한국어는 주어-보어/목적어-술어, 즉 S-O-V의 기본어순을 가지는 데 비하여 영어는 주어-동사-목적어/보어, 즉 S-V-O의 기본어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본어순에 의하여 한국어는 화자-청자간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른 다양한 어미변화와 함께 동사나 서술형용사가 다양하게 발달되어 사용되고 있고 영어는 명사로 문장을 종결짓게 되므로 다양한 명사관련표현이 발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언어의 대응비교를 통하여 명확하게 보여 줄 수 있었던 바 특히 영어에서는 명사 관련 표현으로 there 구문, 전치사구문 등이 발달되어 한국어에서는 동사나 서술형용사 등의 서술어로 표현되어야 할 사건이나 상황을 명사구로 간략하게 처리하는 현상을 보았다.

이러한 표현상의 차이는 같은 상황이나 사건을 가지고도 인지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나고 그와 함께 의미를 부여하고 나열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동사의 의미가 동사의 기능이나 양태를 결정한다는 가설 (Wierzbicka 1986, Pinker 1989, Levin and Pinker 1991)을 입증하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장소이동 표현의 경우 영어에서는 단일 동사에 소리나 모양 등을 위시한 각종 동작의 양태에 관한 정보를 집약적으로 담아 표현하는 데 비하여 한국어에서는 여러 동사들을 순서적으로 나열하는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두 언어 사용자의 인지구조상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영어사용자들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단일동사로 표현되는 모종의 복합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주체-객체와의 관계로 파악하는 반면 한국어사용자들은 같은 사건이나 상황을 파악할 때 순서적으로 동사나 형용사

적인 의미를 따로 분류하여 파악함으로써 동사나 서술형용사들이 연이어 나열되는 형식으로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영한번역이나 한영번역시 이러한 한국어와 영어간의 구조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은 정확하고 적절한 번역을 얻기 위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장소이동을 나타내는 표현에서 한국어는 양태부사어, 의성어 의태어 등을 첨가하거나 보조동사 또는 추가적인 동사를 사용하게 되므로 상응하는 영어표현과 동일한 문장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 동일한 문장구조를 유지하려고 하면 매우 어색한 결과가 되므로 정확하고 적절한 번역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으로 한국어와 영어간 장소이동표현의 차이를 살펴보았거니와 근본적인 언어학적 차이점은 Talmy (2000a, 2000b)가 제시한 행동지배언어-객체지배언어 또는 경로언어-공사건언어 등의 언어유형의 차이와 S-V-O, S-O-V와 같은 기본어순의 차이 및 문맥이나 상황 속에서 생략이나 대용어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나타나는 차이 등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근본적으로 양언어 사용자들의 인지구조상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어와 영어간의 경우에서처럼 인지구조상의 차이와 직결된 언어구조상의 차이가 큰 언어간 번역에서는 각 언어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장소이동 표현 이외에도 상황별, 의미별로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번역과정에서 번역대상언어 (target language)가 원문언어 (source language)의 구조적 특징에 의해서 변형되고 왜곡되는 현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이영옥 (2000), “한국어와 영어간 구조의 차이에 따른 번역의 문제: 수동구문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 47-76.
 _____ (2001a), 『최적영문표현연구: 명사구문편』, 서울: 연학사.

- _____ (2001b), “무생물 주어 타동사구문의 영한번역,” 『번역학연구』 2(1): 53-76.
- _____ (2002), “한국어와 영어간 언어구조의 차이에 따른 번역의 문제: 인용문의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3(1): 59-81.
- Allerton (1975), “Deletion and proform reduction,” *Journal of Linguistics*, 11, 213-237.
- Barlow, M. and S. Kemmer (eds.)(2000), *Usage-Based Models of Language*, CSLI Publications.
- DeLancey, Scott. 2001. *Functional Syntax*, LSA Summer Institute, UC Santa Barbara.
- Im, Sung-Chool (2002), “Typological Patterns of Motion Verbs in Korean,” *Discourse and Cognition* 9(1):123-150
- Kim, Young-Joo (1997), “Verb Lexicalization Patterns in Korean - with Focus on Motion Conflation in Complex Verb Constructions,” *Japanese/Korean Linguistics*, VI, Sohn and Haig (eds.), 495-511. Stanford: Stanford Linguistics Association.
- Lee, Sook-Hee. 1992. *The Syntax and semantics of serial verb construction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 Levin, B. and S. Pinker (1991), “Introduction to Special Issue of Cognition on Lexical and Conceptual Semantics,” *Cognition* 41: 1-7.
- Levin, B., G. Song, and B. Atkins (1997), “Making Sense of Corpus Data: A Case Study of Verbs of Sound,”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2(1): 23-64.
- Pinker, S. 1989. *Learnability and Cognition: The Acquisition of Argument Structure*, Cambridge, MA: MIT Press.
- Talmy, Leonard (1988), “Force Dynamics in Language and Cognition,” *Cognitive Science* 12: 49-100.
- _____ (2000a),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 I: Concept Structuring Systems*, MA: MIT Press.
- _____ (2000b),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 II: Typology and Process*

in Concept Structuring. Cambridge, MA: MIT Press.

Wierzbicka, A. (1986), "What's in a Noun? (Or: How Do Nouns Differ in Meaning from Adjectives?)", *Studies in Language* 10: 353-389.

KCS I

[Abstract]

English-Korean Translation of Movement Expressions

Lee, Young-Ok
Kyung Hee University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English in the way of expressing location movement with a view to applying the results in translation. The difference can be basically attributed to the difference in the language type of the two languages: Korean is an action-dominant, path-oriented language and English is an object-dominant, co-event language. This difference is reflected in the way of expressing various actions or behaviors accompanying the movement from one place to another. It is also shown that such a difference in language type generates other language-specific features for each language: Korean tends to use combined verbs and adverbs for movement, while English tends to use single verbs followed by prepositional phrases for expressing the direction or destination of the movement.

The dominant use of verbal expressions in Korean for the situation for which English uses nominal expressions has been shown to be related to the basic difference in the language type of the two languages and the difference in the basic word order: Korean, S-O-V and English, S-V-O. Thus, the use of pro-forms or deletion as well as various constructions that require nominals in English, like prepositions, transitive verbs, obligatory subjects can be compared with the case of Korean and can be explained as reflecting the basic difference in language type or cognitive orientation between the two languages. Such a clarific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anguage in comparison with its counterpart in translation situation should be the first step before starting the main task of translation.

▶ **주제어:** 장소이동동사, 의성어, 의태어, 조동사